

종합학술대회

2025년도 한국치위생학과 종합학술대회서

학부생 포스터 '우수상' 수상

지난 11월 1일, 온라인(Zoom)으로 열린 2025년도 한국치위생학회 종합학술대회에서 '지속가능한 구강건강: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도전'을 주제로 다양한 강연과 연구 발표가 진행되었다. 강연과 토론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과 치과위생사의 역할, 취약계층의 구강건강,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경영 등 치위생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다양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학부생 포스터 경진대회에 총 57팀이 참가했으며, 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한예은·최송미·김성민·송혜인 학생팀이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장수풍뎅이 유충 유래 펩타이드 Allomyrinasin의 항균 효과와 생물막 억제 활성' 연구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수상팀은 “치위생연구및통계 수업에서 시작한 연구를 발전시켜 좋은 결과를 얻어 뜻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수상은 학부생의 주도적인 연구 역량과 발표 능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성과라 할 수 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경험은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전문성 향상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연구목적

- 구강 내 미생물의 균형은 구강 건강 유지에 필수적이며, 특히 치아우식증의 주요 원인균인 *Streptococcus mutans* (*S. mutans*)의 역할은 지속가능한 구강 질환 예방의 핵심이다.
- 기존의 항균제는 내성 발생, 정상세균총 교란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1], 지속가능한 대안으로서 천연 유래 항균 소재의 개발이 주목 받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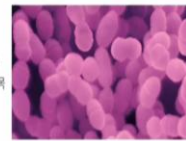


Figure 1. Describe the location of the deployed disk



이번 학술대회는 치위생학 연구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치과위생사의 전문성과 사회적 역할을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